식어버린 스테이크

(마27:51a)

51a.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완전히 운명하셨을 때, 성소의 휘장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로 갈라놓아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일 년에 한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성소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식어버린 스테이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요리사들이 송아지나 소를 갖다 놓고 부위별로 스테이크의 재료를 잘라냅니다.
근데 그 부위별로 잘라낸 스테이크의 종류는 너무 여러 가지라서 우리가 다 잘 몰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뭐 등심스테이크, 안심스테이크, 또 안심 중에서도 송아지 안심스테이크가 아주 육질이 연하고 부드러워서, 많이 아주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 티본스테이크, 아니면 립아이, 립아이스테이크 뭐 이런 정도 알지요.
스테이크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비쌉니다.
그런데 어떤 부위에 얼마나 비싼 스테이크의 재료를 쓰더라도, 스테이크의 맛을 식탁에 앉아서 스테이크를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맛을 가장 좋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온도라고 합니다, 온도.
먹을 동안에 70도C 정도로 유지될 수 있을 때 스테이크의 맛이 최고조로 달한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미국의 뉴저지에서 남쪽으로 뻗어 있는 1번 국도가 있습니다.
그 국도를 타고 뉴저지에서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프린스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프린스턴에 도착하기 얼마 전 많이 떨어져 있지 않는 중간 지점에 동네로 들어가면 스테이크집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안내를 받아서 간 건데, 근데 요즘 보이는 호텔의 고급양식 레스토랑 같은 그런 실내 디자인이 아니에요.
영화에서 보면 청바지입고 조끼입고 모자 쓴, 장화 신은 카우보이들이 들락거릴 것 같은 그런 인테리어를 해 놓은 스테이크집입니다.
기절했어요, 저는.
스테이크가 거짓말 안하고 제 손을 두개를 합쳐 놓은 것 같습니다.
두께도 이건 뭐 몇 센티쯤 되었을까요, 한 4~5센티? 그건 좀 거짓말일까, 하여간 기가 막히게 큰 스테이크가 식지 말라고 돌판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대식가 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참 좋아합니다.
먹다~먹다 남겨서 싸 갖고 집에 가서 집사람한데 줬더니 '어우~ 스테이크를 이렇게 사 왔느냐' 고 온전한 스테이크를 사온 줄 알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웬 스테이크가 이렇게 크냐' 그러는 거예요.
그 집을 한번 다시 가보고 싶어요.
근데 식지 말라고 돌판을 나무로 싸 가지고 그 돌판에 내오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가만히 보면 참 속상할 때가 있지요.
주인공 남녀가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카메라 앵글에 비춰지는 소품 중에 스테이크 접시가 보여요.
대화를 하느라고 스테이크가 완전이 찬밥신세가 됩니다, 거들떠보지를 않는 거예요.
스테이크가 다 식어갑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저 소품은 도대체 장면을 찍고 남게 되면 누가 먹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드라마나 영화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저는 스테이크를 앞에 두고 절세가인을 마주 앉혀 놓고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 스테이크를 먹고 봐야지.
스테이크가 식기 전에 먹고 나서 뭐 커피 마실 때 얘기를 하더라도 스테이크를 식힐 수는 없습니다.
누가 앉아 있어도, 이 명박 대통령과 마주 앉아 있어도 대통령이 말씀 하시는 동안에 듣는 척하면서 계속 먹지 저는, 죽어도 먹어요. 그걸 식혀 둘 수는 없습니다.
스테이크가 기름이 좀 많은 것들은, 어떤 것들은 식으면 허옇게 굳은 기름이 보여요.
그거 어떡합니까, 그 비싼 재료를, 너무너무 아깝지요.

드라마를 그렇게 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다 먹고 조금 남긴 상태에서 대사를 좀 하도록 배우들을 유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 진짜 찢어진 거예요, 진짜 성전의 휘장이.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진 사실이 뜻하는 바, 영적인 의미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예수님이 무서워하시고 두려워하신 내용이 뭔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없애시려 하신 것이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그것이었고, 그것이 없어졌다는 증거가 휘장이 찢어진 거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저주입니다.
그럼 그 저주의 내용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마음은 공복상태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공복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언어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열정이라고 하는 것, 집념이라고 하는 것 모~든 말들이 다, 마음의 공복을 채우려는 노력과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삶 자체가 그런 거예요, 삶 자체가.
마음의 공복을 채우려고 하는 것에서 삶의 행위가 드러나고 계획과 의도와 뜻과 모든 것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저주는 무엇이냐 하면 이 마음의 공복을 하나님으로 배불릴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저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렇게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그렇게, 얼마나 괴로우면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괴로워하신 이유가 바로 저주였고,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만으로 배부름을 알고 계신 주님이, 더 이상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 들일 수 없게끔 되는 상태로 버려지는 겁니다.
죄 없이! 그 저주를 받아야 될 이유 없이!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저주 받은 상태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음의 공복을 하나님은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악 판단의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아! 저것이면 내 배를 채울 수 있겠구나, 다시 말하면 저것을 먹고 싶다, 내가 대통령자

리를 먹고 싶다, 내가 부자의 자리를 먹고 싶다, 이러한 먹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외의 이 세상에서 만나는 것들로, 애인으로 배 부르려 하고 자식으로 만족하려고 하면서 마음의 공복을 채우려 하며 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저주 받은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외 되어진 삶, 마음에 공복을 채울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그런 삶,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로선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저주인가?

다시 한 번 변화산 얘기를 우리가 기억해 봐요.
베드로는 꿈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 그 좋아하는 비전.
하여간 이 망할 놈의 비전이에요, 망할 놈의 비전.
예수님 덕분에 나라를 되찾고 거기에서 예수님 측근이 되어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메시아, 왕 되신 예수님 옆에서 한 몫 차지하겠다! 멋진 꿈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고 여겨진 겁니다.
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그 하나님 되신 모습으로 가득 차게 되자, 이 멋진 드림!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비전을 잊어버립니다.
이건 뭘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마음에 와 닿고 마음에 차게 될 때에, 그 동안 베드로가 먹고 싶었고 마음에 만족, 마음에 공복을 배불리려 했던 이 세상에서의 그 멋진 비전은, 피죽과 같은 거라는 것이에요.

저주 받은 생애, 천민들이 겨우겨우 보릿고개 때 먹을 수 있는 보리 몇 알 띄워놓은 피죽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지다고 생각하는 그 꿈!
칭기즈칸의 꿈! 알렉산더의 꿈! 그 누구의 꿈이라도, 그걸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그 옛날 천민들이 먹던 피죽에 불과한 것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공복을 채우기 위한 재료로서는 피죽이에요 피죽,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멋진 꿈과 비전이 그것을 성취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불러진다고 해서, 하나님과 비교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내 공복을 채울 수 있는 분으로서 제외된 상태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라는 거를, 하나님을 마음에 먹고 있던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받은 저주의 상태, 하나님이 막혀있는 상태,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비전조차도 천민의 식사로 만들어 버리는 그 좋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꿈이 이루어진 그 상태가 천민들의 피죽과 같을 수밖에 없을 만큼 좋은 하나님을 먹어라!' 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스테이크처럼 따끈따끈하게 구워서 내놓은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먹고 배불러라!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면에서처럼, 이야기 하느라고 그 귀한 송아지 안심스테이크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도록 내 버려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 제쳐놓고, 어느 기독교인이 그 하나님으로 내 공복을 채우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우린 이렇게 얘기해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가 뭡니까?
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로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교제를 하실 때 주님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졌습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떻게 했다는 얘깁니까?
주님 바깥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 안에 들어와 주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신, 그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배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그 동안 휘장이 찢어지기 이전에는 이 세상에서 돈 먹고 싶어 했습니다, 돈 많이 벌면 내 마음에 공복이 채워져서 마음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쁠 줄 알았어요.
기쁨, 에덴,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에덴을 회복하는 줄 알았습니다.
휘장이 막혔을 때는, 자식을 잘 키워서 보람을 느끼면 마음의 공복이 채워질 줄 알았습니다.

휘장이 막혔을 때는, 내 외모를 잘 가꾸어서 사람들이 칭찬할만한, 시선을 집중시킬만한 아름다움을 띠게 되면 그것에서 마음의 만족을 이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 저주였다는 거예요.
이 저주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강단에서 드림 갖고 비전 가지라는 거예요.
미쳤어요, 미쳤어요.
기독교가 뭔지를 몰라요.

왜 휘장이 찢어졌습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로 배 부르라! 변화산에서의 베드로의 경험처럼,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죽을 경우에, 저주가 없어지는 삶이 열리게 되는데 그 저주가 없어지는 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휘장을 찢어서 이제 따끈따끈하게 스테이크처럼 우리 앞에 당신 자신을 내 놓고, 나를 먹고 배부르라고 제공하는 일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나갈 길이 열렸다, 휘장이 찢어졌다'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전히 내 배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걸 뭐로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나 돈 많이 벌게 해 주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되게 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 주세요' 이 세상에서 저주 받고 살 때에 공복을 채우려고 했던 재료들을 여전히 붙들고 저주의 삶을 연장 시키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왕으로 영입 됐어요, 왕궁으로 회복됐습니다, 왕의 아들들로.
그런데 왕의 아들들로 회복돼가지고는, 천민 때 먹던 피죽이 아니면 못 살겠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 피죽을 못 먹게 됐다고 우울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없다고.
참 참담한 현실입니다, 참담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뭐에요?
저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 저주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서 저주를 제거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공복을 채우는, 우리 마음속으로 모셔 드려야 할 분으로 하나님을 먹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죄의 습성이 나타나요.
돈 많이 벌고 잘사는 사람 보면, 외제차에 명품 빽 들고 다니는 사람 보면 돈 먹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 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가 그 순간에 오늘에 지금에 나의 사건이 됩니다.
사건이 내 속에서 나의 사건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 돈을 먹고 싶어 했던 저주의 상태로부터 벗어납니다, 휘장이 찢어집니다.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붙잡고 돈 먹고 싶어 하는 내가 죽자마자, 휘장 뒤에 숨어계신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고 나를 먹으라고 당신 자신을 우리 앞에 제공해 내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이 뭡니까? 애인을 사랑할 때 애인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먹은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고 만족해합니다, 행복해합니다, 채워질 때 행복해 지는 거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식지 않고 맛있게 따끈따끈한 70도로 유지된 스테이크를 먹듯이, 하나님을 공복에 먹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싶은 것이 생각날 때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이것만 있으면 기쁘겠다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 이거는 저주의 삶이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 상상력을 동원해서 최고의 좋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내 공복을 채울 때와 비교해 보면 천민이 먹던 피죽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솔로몬의 모든 영화도 피죽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으로 배 부르는 상태와 비교해, 이것을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여겨지는 그 꿈과 비전과 이루고 싶은 것들과 채우고 싶은 것들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면 뭐합니까?

휘장 뒤에 숨어계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 저주를 없애고 휘장을 찢어버리고, 이제 나를 먹으라고 내 놓아도 딴 짓하느라고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스테이크처럼,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마음 앞에서 방치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참담한 현실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서 어떤 것이든 그것을 먹고 싶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기쁠 것이라고 생각되는 순간마다, 그것이 마귀의 속임수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것에 대해 죽으므로 저주가 떠나가고, 휘장 뒤에 숨어계신 하나님이 따끈따끈하게 70도로 유지되며 제공되는 그 식탁 앞에서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을, 따끈~따끈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경험은 십자가 복음사건을 통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자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 뒤에 숨어계신 하나님으로 배부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내 생명 되시는 우리 하나님아버지가 식어버린 스테이크로 취급받고 계십니다. 이 극악한 죄악이, 이 참담한 저주의 현실이 때마다 날마다 십자가를 기억함을 통하여 제거되게 하시고, 휘장이 찢어지며 나타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맛있게 맛있게 공복의 마음으로 모셔들이는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